

삼성, SABIC의 Butene-1 플랜트 수주

5000만달러에 13만톤 플랜트 턴키방식으로 ... PE·PP 플랜트 공급용

삼성엔지니어링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화학기업 SABIC(Saudi Basic Industries Co.)이 발주한 5000만달러 규모의 부텐(Butene-1) 생산 플랜트를 일괄 턴키(Turn-Key) 방식으로 수주했다.

SABIC은 해마다 10억달러 가량을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투자하는 세계적인 석유화학기업으로 매년 유럽 선진기업에게 발주하던 관행을 깨고 한국기업에 사업을 맡긴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새로 발주한 플랜트는 삼성엔지니어링이 현재 알 주베일(Al-Jubail) 산업공단에 시공중인 3억5000만달러 규모의 프로판탈수소(PDH) 및 PP(Polypropylene) 공장 인근에 건설돼 시너지 효과를 높이게 된다.

Butene-1은 석유화학물질에 첨가되는 성능 개선재로 Al-Jubail 산업공단 공장에서 생산되는 한해 13만톤의 Butene-1은 공단 내 PE(Polyethylene) 및 PP 생산공장에 공급된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까지 공사 전과정을 일괄 턴키로 단독 수행해 2005년 3월 완공할 예정이다.

사우디는 중동 최대의 산유국이지만 원유 의존형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수년 동안 지속된 고유가로 축적된 오일달러를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대대적인 석유화학산업 육성책을 펴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7/23>